



이성재



황찬성

“여배우가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든든한 흑기사’ 이성재·황찬성

채널A 월화드라마 ‘쇼윈도:여왕의집’
송윤아·전소민과 불륜 로맨스 그려

CHANNEL A 배우 이성재, 황찬성이 ‘여왕’들을 든든히 떠받치는 ‘흑기사’를 자처했다. 현재 방영 중인 채널A 월화드라마 ‘쇼윈도:여왕의 집’(쇼윈도)에서 두 주인공 송윤아·전소민의 파격 변신에 힘을 보내기 위해서다. 이들은 치정으로 얽힌 두 여자의 심리전에 초점을 맞춘 드라마를 위해 “나보다 상대방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남다른 포부까지 내비친다.

이성재는 부유한 집안의 송윤아와 결혼해 미혼인 미술학원 강사 전소민과 바람을 피우는 신명석 역을 맡았다. 겉으로는 완벽한 가장이지만, 자신의 야망에만 관심을 쏟는 모습으로 극중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2012년 JTBC ‘아내의 자격’, 2018년 MBC ‘이별이 떠났다’ 등에서도 ‘불륜남’ 캐릭터를 연기했던 그는 ‘쇼윈도’를 통해서 “전보다 현실적인 면모”를 부각했다.

이성재는 최근 스포츠동아와 나눈 인터뷰를 통해 “같은 재료로 요리해도 저마다 다른 맛을 내는 음식들이 있듯, 불륜과 치정 소재로 ‘쇼윈도’만의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야기 초반을 이성재가 이끈다면, 후반부터는 황찬성이 존재감을 발휘한다. 극중 송윤아의 이복동생 한정원 역을 맡은 그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아버지의 불륜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상처를 지녔고, 송윤아와 전소민의 격돌 사이에 휘말려 점차 변화하는 인물이다. 아이돌 그룹 2PM의 맴보로서 치정·불륜 소재를 내세운 드라마 출연이 ‘의외’라는 반응을 얻기도 했다. 황찬성은 “줄거리를 말해주니 맴보들도 다들 토끼놀이 돼 놀랐다”면서 “새로운 장르를 통해 전에는 미처 보여주지 못한 매력을 드러내고 싶다”고 말했다. 올 1월 전역 이후 안방극장 복귀 드라마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셈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donga.com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세계적 흥행 이끈 유/아/인

“혐오·폭력 넘치는 현실 지옥과 다를 바 없죠”

인기 높아질수록 연기 부담 커져
끊임없는 시도·실험으로 삶 세공
강한 에너지 지닌 캐릭터 욕심나
레벨 업 된 버전 보여드리고 싶어

”

“국가대표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하하!”

배우 유아인(35)은 호쾌하게 웃었다.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장 많이 본 TV쇼(프로그램)’ 1위에 오른 주연작 ‘지옥’에 대한 해외의 반응을 묻자 그는 웃음으로 답했다.

그는 “너무 기분이 좋다”면서 ‘세계무대에 올라선 한국 배우와 작품을 많은 이들이 인식하는 것 같다. 세계무대에 내놓으려면 유아인이 제격이지’라는 국내 한 누리꾼의 유튜브 영상 댓글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내 표정이 진지해졌다. “부담스럽기도 하다. 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조금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으려는 칼날 같은 시선을 느낀다”면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다짐으로 유아인은 사람들이 지옥의 사자들로부터 지옥행을 선고받는 등 초자연적 현상 앞에서 벌어지는 공포와 절망, 위험한 세상의 이야기를 그린 ‘지옥’에 출연했다. 극단적 혼돈 상황 앞에 놓인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사이비종교의 교주 역할이다. 유아인은 자신이 연기한 캐릭터는 결국 “혐오와 폭력, 집단의 광기 등 비슷한 현상이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신념과 현실을 끊임없이 의심한다”

“상당히 묵직한 동시대적 메시지가 다. 하지만 지옥과 천국이라는 콘셉트는 영원불멸의 트렌디한 소재이다. 지옥은 수도 없이 해석되고 표현되며 은유 되어 왔다. 어렵게 받아들이 필요 없다. 전쟁을 치르는 듯한 세상 또는 정치판에 대한 풍자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어떤 맹신과 그걸 무기 삼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 우리 그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로 전 세계 많이 본 콘텐츠가 됐다.

“(넷플릭스 같은)플랫폼을 통해 작품이 월드와이드로 공개되고 소개될 수 있다는 건 반갑다. 작품에 대한 평가가 점점 치열해지는 과정이다. 그 속에서 좀 더 폭넓은 관객의 피드백과 평가를 얻으면서 좀 더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건 배우로서도 좋은 일이다.”

“‘지옥’에서처럼 지옥행을 고지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나.

“20대를 그렇게 살았던 듯하다. 상당히 느긋한 걸맞게 짜들어서 20대를 살았다. 내일 죽어도 상관없을 것처럼, 그런 에너지로 살았다. 그러면서도 나를 좀 더 과감히 던지고 실험하며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연기를 하면서 그 시절이 떠올라 스스로 비웃기도 했다. 하하!”

●“본질 잃지 않는 작품은 회자될 것”

유아인은 계속해서 시도와 실험을 강조했다. 배우로서 늘 작품이라는 새로운 무대 위에서 지속적으로 연기이든, 이미 지이든, 무언가 도전을 해야 하는 운명 말고도 그는 자신의 삶 전반에 걸친 “세공”을 말했다.

유아인은 한동안 SNS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와중에 자신 생각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다. 그 때문에 누군가와 충돌하기도 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듯한, 유명세를 얻은 자로서는 쉽지 않은 길을 보란 듯 걸어가는 듯 보였다.

“‘지옥’의 연출자 연상호 감독은 신념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신념이 무너질 위기라면 당신은 이를 버리고 현실을 택할 것인가.

“신념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신념을 만들어낸다. 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모두 끝까지 의심하고 검증하려는 편이다. 내면의 신념이 해결된 상태로 외부로 표현되기도 하고, 외부로 표현하면서 신념을 실험하기도 한다. 나라는 원석을 계속 빚어가며 세공해가고 뭔가 만들어가

배우 유아인이 세계적으로 뜨거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의 인기에 대해 “정말 기분이 좋다”면서도 “때로는 부담스럽고 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이라며 속내를 털어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야 한다. 내 믿음과 신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를 그것을 주변과 세상에 던져보고, 반응을 보고 느끼며 중심을 조금씩 찾아간다. 그렇게 계속 새로운 균형이 생겨나는 것 같다.”

-‘지옥’이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나.

“바라바, 없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로 기억해주면 좋겠다. ‘사도’나 ‘베테랑’ 같은 선 굵고 표현이 강렬한 인물로 크게 사랑받았다. 한편으론 나를 가두는 선입견을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하다. 이후 다른 시도와 실험을 하며 내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 다시 강한 에너지를 가진, 그런 에너지를 요구하는 작품 속 인물을 연기하면서 레벨 업 버전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자신 안에 체화해 에너지를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고 덧붙였다. “에너지를 작품에 녹여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실험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겠다”는 그에게도 원칙은 있었다. “좋은 작품의 본질과 핵심”을 잃지 말자는 거였다. ‘지옥’처럼 ‘케이(K)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의 시대, 배우라는 또 한 사람의 창작자로서 그는 그걸 강조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0-03815호(2020.12.24) (COM-2020-08-32243)

“암보험 하나 있는데 뇌출혈도 걱정되고”

뇌출혈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2018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암치료비는 나오지만 생활비가 부족하고”

암 진단 후 실적 또는 휴직 46.8%
2013 국립암센터(국가암원자 의료비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심장질환 보장비들”

심장질환 2위 질병은
대만인 2위 심장질환
2017 사망원인통계, 통계청(2018)

내 보험! 보장비들 걱정없이!

꼭 필요한보장이 없어서는 곤란하고 생각할 때, 이제 걱정 마세요
큰 병의 진단비도, 특약으로 생활비까지도 걱정없이!
원하는 보장만 골라보험비들을 꼭꼭 채워드립니다.

가입고객 전원, <AIA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상세 내용 별도 안내장 참고

무배당 **백세시대** (갱신형)
꼭 하나 건강보험

노출형 진단비 **금성심근경색 진단비** **암생활비 (특약)**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나이가 많아도** (40 ~ 75세) **자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건강보험 꼭 하나
들어야 한다면 전화주세요
080-860-6700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 가입 후 첫날부터 보장(가입 2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 진단금은 최초 1회한도) 단, 암 특약은 가입 후 91일부터(소액암은 첫날부터) •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 될 수 있음) • 만기 원금급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입니다.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자세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성 •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이츠 2in1 와이드그릴 상담원소, 무료증정!
(이벤트 기간: 2020.12.01 ~ 2021.12.31)
• 앞수 후 7월 이내, 최소 50만 이상 상품 시(개인정보 제공)
• 배송은 상담원료 후 약 6주 소요(만 1회 한정)
• 행사 기간 동안 구매 금액에 따라 소액 상품 제공
• 본 상품은 소비자가 기존 평판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 다른 상품으로 대체 발송될 수 있음